

특수교사의 IEP 수립 및 운영 실제와 지원요구

박 윤 정*

단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서 효 정**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조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운영의 주체인 '특수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IEP 수립 및 실행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 성찰을 통한 실태와 지원요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장 특수교사 8명이 초등과 중등 두 집단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에 참여하였다. 면담 자료 전사 신뢰도 확인 후, 연구자가 지속적 비교법을 사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IEP 수립 및 운영 실제와 지원요구로 다음의 5가지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1) IEP 관련 최소한의 법적절차 준수, 2) 교사의 IEP 관련 전문성 부족, 3) 학교 구조 및 교육제도 개선 지원요구, 4) 예비 및 현직 교사교육 강화 지원요구, 5) 시스템 및 메뉴얼 구축 지원요구.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성공적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발전 방안을 예비 및 현장 특수교사 지원을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과 시스템적인 지원체계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연구가 지닌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향후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개별화교육계획, 교사교육, 질적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

* 제 1저자

** 교신저자 (hyojeongseo@kongj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실행해 나가고, 시·도교육청, 현장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나간다. 최근 교육부(2016)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①유연화(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②자율화(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③개별화(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④전문화(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⑤인간화(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로 크게 제시하고 초·중·고 및 대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전략 22가지를 담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개별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 능력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와 요구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에서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이하 IEP)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IEP와 관련된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고 법적인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다. 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정의부터 살펴보면, 개별화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한 요구(학생들의 다양성-즉, 인지적 능력, 관심사, 개성, 학습양식, 학습능력, 학습 환경 등)에 부응하는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화교육계획 문서의 작성 및 그에 따른 수업 활동은 교사의 교육과정 수정 및 조절 능력과 태도, 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윤광보, 2008). 따라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특수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 IEP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 간의 차이가 크며 많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IEP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강은영, 박윤정, 서효정, 박경옥, 2018). 이에 따라 IEP 관련 교육의 실재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된 어려움을 살펴보면, 학부모, 관리자 등을 포함한 IEP 지원팀 구성과 협의회의 운영이 매우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하여 특수교사 혼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계획을 문서화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강민채, 박현주, 2012; 김진주, 박재국, 김일수, 2016; 박경옥, 서선진, 2016; 태원섭, 박남수, 2007). 무엇보다도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IEP 내 장·단기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계획하며, IEP에 근거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을 하는 특수교사의 개별화 수업에 대한 능력, 즉 전문성이 미비함이 지적되고 있다(박경옥, 서선진, 2016; 방명애, 강남숙, 2005; 윤광보, 2008). IEP에 앞서 언급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화된 교수·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행수준을 파악하고 진단도를 점검하여 향후 학생을 위한 교육적 의사결정을 할 때 핵심적인 근거자료가 된다. 안타깝게도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적 지원의 내용과 방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관리·점검하는 IEP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강은영 외, 2018), 이와 같이 형식적인 IEP 수립 및 실행, 특수교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는 교사교육과 관련된 쟁점이라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교육부나 지역교육청 단위 등에서 각종 교사연수 등을 통해 IEP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실태와 수요에 맞추어 교사가 IEP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고, IEP와 교육과정을 근거로 개별화 수업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IEP 수립과 운영에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현직 교사교육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예비교사의 개별화교육을 위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보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예비 교사교육 실시와도 매우 큰 관련이 있다. 즉, 개별화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 뿐 아니라 예비 교사교육 강좌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되기 위해 어떠한 성격과 목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강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통합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실제 성공적인 개별화교육의 구현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강은영, 박윤정, 2016; 박경옥, 서선진, 2016). 보편적으로 교육 현장 전반에 걸쳐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교수내용 지식과 실천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Grossman, 1990).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적 맥락(상황) 및 자원의 이해 등을 고려하는 교수내용 지식과 교사의 실제적인 경험 및 교육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적 지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박선향, 박수경, 2016), 특수교육에서 예비 및 현직교사들에게 전문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사교육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은주, 2014; 박윤정, 강은영, 2016; 최승숙, 2012). 학교 현장에서는 질적 수준이 높은 수업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된 특성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수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김희규, 2012; 전병운, 2008), 본 연구는 IEP의 수립 및 실행의 주체인 '특수교사'에 중점을 두고 초·중등 현직 특수교사의 교육현장 경험을 기초로 IEP 교육 실제의 실태와 지원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교육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전국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의 IEP 관련 교육과정 개설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부, 2017)에서 특수교사 양성기관의 목록을 확인하고, 학교별 관련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IEP 교과목명과 개설여부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 직접 학과사무실에 유선연락을 하여 홈페이지 제공 정보의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째, 2017년을 기준으로 학부 과정에서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총 39개교이었고, 그 중 총 32개교(홈페이지 및 유선연락으로 최종 확인된 학교: 31개교, 유선연락으로 최종 확인이 불가능한 학교: 1개교)에서 IEP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였다. 32개교 중 7개교의 특수교육과에서 IEP 관련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2017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의 경우 17개 대학에서 27개의 특수교육 정교사 양성과정(27개의 세부전공; 예: 유아, 초등, 중등 특수교육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중 3개 교육대학원 전공만이 IEP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교원양성기관의 IEP 강좌 운영에 대한 단순 실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교사들은 IEP 수립·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교사교육 기회를 통해 충분히 함양하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경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교사 대상 IEP 관련 인식 제고와 실질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예비 및 현직 교사교육의 확대는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김형일, 2015; 박경옥, 김지연, 2017; 박경옥, 서선진, 2016; 박윤정, 서효정, 전병운, 한경근, 2016, 이소현 외,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직 특수교사의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IEP 수립과 실행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과 현장교사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실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개별화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선 과제로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기회이자, 향후 특수교육 교원양성기관,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관련 교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및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방향 설정이나 자료 제공을 위한 기초 가이드 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초·중등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초·중등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관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사 양성 과정 및 현직 교사교육에서의 지원요구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장 특수교사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통해 IEP 수립 및 실행의 실재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며 교원양성과정과 현장 교사교육 차원에서 향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경기지역 특수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 현직 특수교사 중 IEP 수립 및 실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교육현장의 경험을 성찰해보면서 지원요구에 기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지닌 총 8명을 목적표집 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기초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FGI 참여 초등 및 중등 특수교사 기초 정보

구분	성별	경력	현재 근무지	담당업무	IEP 관련 교사교육	
초등	초1	남	3년	특수학급	담임교사	없음
	초2	여	14년	특수학교	담임교사	대학 교원양성과정
	초3	여	2년	특수학급	순회교사	없음
	초4	여	4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대학 교원양성과정
중등	중1	남	4년	특수학급(고등)	담임교사	없음
	중2	여	4년	특수학급(중학)	담임교사	없음
	중3	여	6년	특수학교(중등)	담임교사	대학 교원양성과정, 교사 직무연수
	중4	여	5년	특수학급(고등)	담임교사	대학 교원양성과정

2. 자료 수집 절차

면담 질문지는 IEP 관련 교육의 실제 및 교사 지원요구 고찰 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김정삼, 김진희, 2011, 박경옥, 서선진, 2016; 이효정 외, 2014) 연구자들이 논의하여 반구조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IEP 수립 및 실행 경험 및 지원요구, 교원양성과정 중 IEP 관련 예비교사 교육 경험, 성공적인 IEP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지원요구와 관련하여 면담 문항을 1차적으로 개발하였고, 특수교육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자간 협의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였으며 <표 2>와 같이 최종 질문 내용을 개발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이상적인 인원은 6명-8명이긴 하지만, 최근 면담자 모집 및 포커스그룹 면담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의 FGI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Krueger & Casey, 2000),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총 8명의 교사들을 교육환경의 동질성에 따라 초등 및 중등 두 집단으로 나누어 FGI를 실시하였다. 면담 진행은 FGI 실시 일주일 전 참여자 전체에게 이메일로 사전 질문지를 발송하여 면담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전체 연구 참여자가 회신한 총 39페이지 분량의 사전 질문지 응답 자료를 FGI 이전에 검토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응답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 상호 추가 질의응답을 하고, 원활하게 IEP 교육 실제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실질적 지원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본 연구 참여 동의 및 면담 내용에 대한 녹취는 사전에 전원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집단별 FGI가 약 2시간 이내로 이루어졌다.

<표 2> 면담 질문 문항 내용 예시

면담 질문 문항	
1	현재 학기단위 IEP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	특별히 IEP 수립 및 실행 시 시행착오를 겪었거나,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3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으로 IEP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으신가요? 배운 것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배운 것을 잘 적용하고 실천했던 부분은 어떠했나요?
4	교원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향후 성공적인 IEP 개발 및 실행을 위해 중점을 두고 반드시 배워야할 내용이나 기술/방법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	현장교사로서 보다 효과적인 IEP 개발 및 실행을 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자료 분석 방법

FGI 종료 후 3주 이내에 학부 및 대학원 연구보조원을 통하여 전사본을 작성하였으며, 전사본 자료는 A4용지 기준 초등 23쪽, 중등 24쪽으로 전사되었다. 연구자 1인은 녹음파일과 전사본 자료를 검토하여 면담내용이 정확히 전사되었는지 전사 신뢰도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제출한 사전 질문지 응답 자료는 초등 18쪽과 중등 16쪽 분량 내용으로 작성되어 총 47쪽 전사본 자료와 함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사신뢰도 확인을 마친 최종 전사본에 대하여 연구자 2인은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이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고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FGI 전사본을 읽고 개방 코딩을 진행하여 1차 질적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각자 1차 분석을 마치고 연구자가 모여 논의와 합의를 통해 대주제와 하위주제에 대한 코드명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기록하며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다시 전사본을 정독하면서 의미상 구분하거나 통합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내용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끝으로 내용 분석 과정에서 객관성과 분석의 신뢰도를 보다 높이하고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혹 분석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충실히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member check)을 진행하였는데, 별다른 수정 의견은 없었다.

III. 연구결과

초·중등 특수교사가 경험한 IEP 수립 및 실행의 실제와 지원 요구를 FGI를 통해 살펴본 결과 <표 3>와 같이 5가지의 대주제: 1) IEP 관련 최소한의 법적절차 준수, 2) 교사의 IEP 관련 전문성 부족, 3) 학교 구조 및 교육제도 개선 지원요구, 4) 예비 및 현직 교사교육 강화 지원요구, 5)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지원요구와 15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5가지 대주제별로 하위주제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FGI 분석 결과: 대주제와 하위주제

대주제	하위주제
I. IEP 관련 최소한의 법적절차 준수	I-1. IEP 협의회 운영 절차
	I-2. 법과 교육실제 간의 차이
	I-3. 교육배치환경에 따른 IEP 실제 차이
II. 교사의 IEP 관련 전문성 부족	II-1. IEP 내 목표설정 교사 역량 부족
	II-2. 목표 기반 교육과정 재구성 전문성 부족
	II-3. IEP 작성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 부족
III. 학교 구조 및 교육제도 개선 지원요구	III-1. 구성원 간 협력의 어려움
	III-2. 대상자 현재수행수준 파악의 어려움
	III-3. 표준화된 구체적 실행 지침 부재
	III-4. IEP 작성과 실행의 분리에 따른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
	III-5. 문서 수정의 어려움
IV. 예비 및 현직 교사교육 강화 지원요구	IV-1. 교원양성기관의 역할 강화
	IV-2.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구성원 인식제고 교육
V.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지원요구	V-1. IEP 작성과 실행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 제공의 필요성
	V-2. 나이스 시스템 활용 활성화 및 개선

1. IEP 관련 최소한의 법적절차 준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별화교육 관련 법적 근거를 기초로 매학기 시작 2주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학기 초 운영하며, 30일 이내에 법에서 제시된 IEP 작성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이전에는 구성원 특히, 학부모에게 먼저 기초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사전에 수집한 기초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IEP 문서를 작성하며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특법에 근거한 데로 시간을 지켜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IEP 협의회를 개최할 때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중략) 협의회 하기 전에 이제 기초조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가정으로 보낼 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중3, 2:11-14)
- 구성을 2주안에 하고 협의회를 열고 협의회 전으로 학부모 의견서 받고 이제 협의회 때는 그냥 특수학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간일정 같은 거를 안내한 다음에 대부분 이제 통합교사랑 특수교사랑 학부모랑 이렇게 3명에서 상담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중2, 2:33-35)

-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 활동 지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원팀의 구성원에게 요구조사서를 제공해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초1, 3:8-12)

그런데 법적절차를 준수하며 개별화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에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법에 명시된 세부 내용(예: 전학 혹은 상급학교 진학시 IEP 송부 내역과 보관 기준, 특수학급 미설치교 IEP 작성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적 배치일 고려 IEP 작성 기한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안내와 지침이 부재하여 해당 교육청 단위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 IEP의 법적인 기준 일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주 이내와 30일 이내가 있는데 (중략) 특수교육대상자가 방학 때 배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방학 때 개학 인근 물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고려해서 개학 날 근처에 배치하기는 하는데 가끔씩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초1, 11:31-37)
- 전학이나 상급학교를 진학하는데 있어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송부할 때 IEP 전체를 다 보내는 특수교사도 있고 아니면 최근 1년치만 보내는 교사도 있고 그것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그것을 복사본을 보내는 학교도 있고 원본자체를 보내야 한다라는 특수교사도 있고 (초1, 12:31-34)
-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특수교사도 없는 학교에 저희는 또 큰 부담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화교육계획과 관련된 간단한 틀을 하나 만들어 보내면서 여기에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라 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화교육계획자체가 법적인 문서인 것은 당연하고 실제적이고 학생에게 꼭 필요한 문서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중략)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초3, 16:14-22)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개별 학생을 위한 협의회 개최의 부담이 매우 커서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협의회를 실시하거나 주로 학부모 1:1 면담으로 진행하며, 교과전담교사인 경우에는 IEP 협의를 위해 학부모를 공식적으로 만나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특수학급의 경우도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교사가

상담 형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교사는 그냥 확인만 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수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의회 운영 시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관리자들과의 관심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하였다.

- 지원팀에는 보호자와 일반교육 일반교사, 그리고 특수교사,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진로 및 직업이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호자, 일반교사, 특수교사 정도로만 연구를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1, 3:17-19)
- 특수학교다 보니까 전교생이 다 IEP를 짜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명 한명에 대한 IEP회의를 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 1:1상담을 (중략) 교과인 저는 학부모님을 IEP를 위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부모님이 아이를 등하교시키기 위해서 오시면 그때 아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을지언정 IEP를 논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구요. (초4, 7:37-41)
- 작성이 다 된 다음에는 이제 학부모님부터 결재가 다시 시작 돼서 통합교사도 그냥 확인만 하는 정도? 관리자들도 확인하고 결재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중2, 3:6-8)
- 학부모님들이랑 뭐 관리자분들이랑 협의회를 열고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짜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의견을 내주세요, 어떤 거 해주세요, 해도 잘 안 적어 주세요, 그래도 모여서 얘기를 해야지 뭐 한 두 분 정도 얘기를 해주실 거고 또 그 조차 안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중1, 5:13-15)

2. 교사의 IEP 관련 전문성 부족

연구에 참여한 초·중등 특수교사들은 IEP 수립 및 실행과 관련하여 목표설정 및 교육계획의 수립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기반 하여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목표를 수립 시 학생의 현재 수행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 실시에 적절한 방법과 도구가 제한이 되다보니 장·단기·차시 학습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현실적으로 학생이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발달 영역 및 교과에 걸쳐 IEP를 작성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별 학습 중심의 IEP를 작성할 것인지 발달 영역별 일상생활 기능 향상 중심의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근무지와 IEP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니 혼란스러워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는 목표가 설정되고 수업에서는 또 다른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IEP자체에서 볼 때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중략) 장기목표, 단기목표 그리고 해당 차시 학습목표를 설정할 때 (중략) 내가 너무 이 아이의 수준 파악을 잘 못하고 내 욕심만 부렸나 (초1, 11:21-24)
- 수학에서 진단평가를 실시를 간단하게 하고 근데 이 진단평가를 저도 처음에 이제 발령을 받았을 때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중략) 제가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결과가 나와도 이게 교육과정을 짜는데 막상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2, 2-3:40-2)
- 이 모든 과목의 IEP가 정말 필요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끼워 넣기 식의 IEP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IEP스럽게 다 짚다할지라도 이것들을 구성해서 교육과정으로 다시 창조해내야 되는데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중3, 7:13-17)
- 내용이 학문적일 수도 있고, 일상생활의 기술일 수도 있고, 뭐 사회성일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쳐라 IEP를 써라 지침대로 했는데 근무지를 이전하고 나서는 모든 과목에 대한 IEP를 쓰되 어떻게 쓰든 상관없고 (중3, 7:24-27)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 파악의 어려움과 목표 설정의 어려움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사들은 특수학교 연간교육과정 혹은 특수학급 교육과정 수립과 단위별 수업 계획까지 어떻게 연계하여 IEP를 구성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발달 영역 중심으로 IEP에서 강조한 것을 교과별 수업에 반영하여 지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고, 수업에서 학생의 수준과 학부모의 요구에 적절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막상 진짜 너무 의지는 굴뚝같은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육방법을 쓰면 이게 효과적 인건지 그리고 이 학생한테만 너무 개별화 돼서 애들하고 상호작용을 막는 건 아닌지 정말 별 고민이 다 되거든요, (중2, 14:8-11)
- 개별화교육계획이랑 아이들을 가르치는 연간교육과정이랑 이중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중략)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자꾸 연간하고 아이들하고 따로 놓고... 그러면서 수업을 연간교육계획도 한 차시 IEP를 하더라도 한 차시는 연간교육의 다양한 과정의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또 그 수업을 준비해야 되고 IEP는 또 IEP대로 준비해야 되는 교사의 업무에 대한 과중이라고

하나요? 그게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중3, 14: 23-38)

- 다 다른 교육적 요구를 한 활동 안에서 목표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략) 이 수업에 애는 너무 기능적인 거에만 한정되어있어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다 맞추는 활동들을 하기가 사실상 학교 내에서 쉽지가 않다라는 어려운 점 (중1, 15: 10-27)
- 어머니는 이 아이가 아무 무의미한 수업이기 때문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데 어느 누구도 이 학생이랑 단들이 케어 할 수 없고 또 원반 선생님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을 같이 가되 다른 활동을 대신 하게 되는 거죠. (중4, 15:32-34)
- 국어를 교과 선생님이 IEP를 짜셨는데 이 아이의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짜셨고 어머님하고 치료 선생님 둘 다 이걸 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왜 우리 애가 아닌걸 보내줬냐 라고 물어보셨고 이제 과정에서 연간교육계획과 묶어서 가다보니 그렇게 좀 수준 높게 표현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수업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중3, 20:22-26)
- 이 친구는 사실 과학 교과에 대한 어떤 인지적인 능력보다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면 내지는 쉬는 시간에 학급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면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과학 교과의 어떻게 끌고와서 녹일 것인가에 대한 괴로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중3, 21:14-17)

IEP 작성 시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계획을 잘 작성하고 있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같이 확인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 등 지원을 받을 데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시 자료 또한 많지 않아서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주변에 인근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여쭙 봐도 자신 있게 얘기 해 줄 수 있는 선생님도 아직까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고 (초1, 11:27-29)
- 이전 담임선생님은 IEP를 어떻게 쓰셨나? 전임교과는 어떻게 쓰셨나? 이렇게 돌아가 봤을 때 선생님들 마다의 생각이 워낙 다르다보니까 참고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사실 어 이 친구 수준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짜셨지 싶을 때도 있고요. (중3, 12:33-35)
- 잘못된 거를 답습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따라서 생각하시는 포커스들이 굉장히 다르시잖아요, 그니까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학문적인 게 중요하다, 그래서

덧셈, 뺄셈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은 기능적인 게 중요하다, 라고 하니까 사실 이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고 (중4, 16: 12-15)

3. 학교 구조 및 교육제도 개선 지원요구

IEP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교사들은 IEP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지원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첫째,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앞서 대주제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교사 외 팀 구성원들의 낮은 인식과 참여가 상당히 소극적이며, 주요 역할과 책무성에 대한 공유가 되지 않아 특수교사 혼자 많은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EP를 작성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 과정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관련 서비스와 그리고 그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IEP하고 항상 좀 따로 노는 걸 많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중략) 사실 시설 관계자, 학부모와의 협력해서 지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꾸려나가는지 이런 것들 IEP를 구성하거나 운영 하는 과정에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중3, 19-20:31-4)

둘째, 협의회 운영을 통한 대상자 기초 정보를 파악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시작으로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 가능한 적절한 표준화된 진단평가 도구가 없어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교사가 자체적으로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해도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중등에서는 초등 수준의 관련 단위평가를 사용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도구의 사용과 진단으로 오히려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제한시키는 것 같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 그냥 뭐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그런 진단평가 같은 간단한 문제로 진단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본교육과정이라든 초등공통교육과정 이죠, 아무래도 중학교는 어려 우니까 그래서 그거 2가지로 재구성을 한 다음에 교육과정을 짜고 (중2, 3:3-5)
- 진단평가를 하는 게 사실 특수교육에서 표준화된 진단평가가 없기도 하고 또 내가 자체 제작해서 만든다 해도 그게 모든 것을 학생들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물론 표준화가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중1, 4:24-26)

-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 관련된 단원평가 물을 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풀리게 하는데 이게 참 되게 제한되어 있고 뭔가 세부적으로 아이의 정확한 그런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딱 6학년 까지만... 중1에 대한 평가는 또 안하게 되니까 아이의 수준을 저희가 제한을 시켜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더라고요. (중4, 23:1-10)

셋째, 구체적인 IEP 수립 및 실행 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지침이 부재하여 학교급별, 학교별, 교육적 배치환경별, 시·도교육청 지역별, 관리자별, 특수교사 재량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였다. IEP 문서 작성 시에도 정말 필요한 몇 가지 영역 혹은 교과만을 작성하거나 모든 교과목을 작성하는지 작성 기준과 지침도 다르며, 관리자가 특정 교과를 선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IEP 작성양식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매우 다양하며, 공문이나 연수를 통해 제공이 되나 현실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특수교사 재량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 양식은 보통 공문이나 어떤 연수 자료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샘플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특수교사 재량으로 특별히 수정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1, 3:29-30)
- IEP형식도 저희가 지금 나이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학교마다 완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년도 마다 선생님들이랑 이제 수정을 해서 조금 조금씩 바뀌어나가긴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이제 다 짜고 나면 막상 이게 체계가 아니고 시스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2, 21:29-32)
- 근데 현장체험학습을 나가게 되면 하루를 빼고 나가게 되잖아요. (중략) 저희는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면 그 옆에 그거와 관련된 원반 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 관련된 단원을 다 기재하고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정보공유가 사실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안되어 있기도 하고 장학사님한테 전화해도 저희 장학사님 초등이라서 잘... 저도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중4, 23:17-21)

넷째, IEP 문서작성과 이에 근거한 교육 실행이 분리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교과별 또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 영역별 IEP를 문서화하는 것과 함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교육과 학생의 기능적인 기술 및 능력을 신장하도록 개별화 수업을 준비하는 것까지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 및 수업 준비에 대한

이중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 IEP를 실행할 때 (그건 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목표를 설정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초2, 14:31-32)
- 학습지에 나오는 그런 단원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에 접목시키면서 했던 게 아니라서 (중략)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서점에서 사온 수학과 국어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 단원 그대로 해서 가르치는 그런 거라서 저도 되게 아 이게 정말 내가 하려고하는 게 맞나 이런 게 정말 교육인가 라는 생각을 (중4, 12:13-17)
- 기초 배변이나 아니면 정말 손 씻기 이런 기초적인 수준들 옷 입기부터 가르쳐야 되는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를 사회시간에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 잡고 가야되는 그니까 뭐 생활신변기술을 잡고 가야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중3, 12:29-32)

다섯째, IEP를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학생의 진전도에 따라 교육목표 및 방법에 있어서 수정사항이 생기게 되는데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고, 개별화교육지원팀 동의를 거쳐 기안을 다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문서 수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리자에 따라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 수기 결재를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부담스러우며 나이스 상에서도 수정이 쉽지 않은 문제라 월간 교육목표 및 평가에 대한 교육계획을 통해 진행하고 IEP를 수정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IEP 문서상 수정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학부모 상담 내용을 기초로 변경 진행한 경우, 실제 교육내용과 학습한 것을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다.

- 학기 초의 아이들에게 진단평가를 해도 아이들의 수준이 원하는 계획만큼 따라 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초창기 제가 초임으로 일했을 때는 제가 알아서 그냥 수정하고 (중략) IEP가 수정됐다는 기안 올리고 학부모님이랑... 아 그전에 학부모님이랑 상의하고... 다시 IEP표지를 수정해서 다시 사인 받고 그거 보판을 따로 하는 식으로 (중4, 8:4-8)
- 익월의 계획을 전 월말에 상신을 하고 그 달의 평가를 이제 그 달 말에 해서 나이스에 상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기 목표에 비해서 학생 수준이 따라오지 못한다할지라도 그냥 월 단위 계획을 낮게 잡고 (중3, 8:11-14)
- 다 다시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물론 저는 하려고 했지만 학교분위기가 관리자분

13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3호)

들도 안 좋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상 수기결재를 수정한다는 자체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 부모님이랑 상담한 내용을 써서 그거대로 좀 진행을 했어요. (중2, 9:18-21)

4. 예비 및 현직 교사교육 강화 지원요구

특수교육 현장에서 IEP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성공적인 IEP 수립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교사교육 강화 지원요구가 도출되었다. 우선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IEP 이해, 교육과정 및 교수적 수정, IEP 내 목표 진술 및 문서 작성의 실제와 같은 교육내용을 지도하여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IEP 관련 교과목이 선택교과가 아니라 필수이수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대학양성기관이 수업을 통해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목표에 따른 평가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중략) 일반수업 교육과정이란 특수교육과정 가져와서 좀 구체적으로 그런 교육적인 학습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구 (중략) 교수방법에 대한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좀 가르쳐줘서 이 학습내용에서는 이 교수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2, 18-19:37-6)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뭐,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암기하고 공부를 했지 정말 실제로 개별화교육을 짜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중략) 개별화교육계획이라는 과목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는 학교가 있으면 좀 개설이 다 되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중1, 11:34-38)
- 제가 직접 수립해보지 않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일단 IEP가 어떤 거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건 전혀 도움이 안됐었고 사실 이제 직접 제가 작성해보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막상 처음 IEP를 작성하려고 하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목차를 따오는 수준 그 정도 밖에 못 따라 가는 (중2, 12:4-6)

예비교사뿐 아니라 현직교사들이 교원연수, 수석교사 컨설팅 등을 통하여 IEP 수립 및 실행과 관련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EP의 이론적 기초 혹은 구성요소 학습을 넘어 실제 다양한 IEP 작성의 예를 많이 접해보고 직접 계획해보며 충분한 실습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을 확대할 것을 거론하였다. 특수교사 역량 강화 뿐 아니라 통합학급 담임교사 인식 제고를 위해 학기 초 바쁘더라도 IEP 연수를 실시하는 것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협의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여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 방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샘플을 많이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중략) 작성해보는 기회를 가진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중략) 좀 더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수석교사 주도의 그런 컨설팅이 지속성으로 이루어진다면 초반 3년만 그걸 제대로 잡아놔도 4년 차 부터는 주도성을 가지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초3, 21:38-41)
- 통합선생님들은 이 IEP에 대한 부분을 특히 요즘 임용에 합격하신 선생님들 말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중략) 이것만큼은 학기 초에 연수를 할 수 있게끔 (초4, 22:22-25)
- 학부모님의 관심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중략)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또 학교 내에서는 이제 관리자들에게 대한 그런 특수교육 대상들에 대한 좀 관리자들도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관리자분들도 법적인 거니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 우리가 뭘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1, 23:36-41)

5.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지원요구

성공적인 IEP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지원요구로 교원양성교육기관의 중추적 역할과 교사교육을 통한 팀 구성원의 인식제고 및 의사소통 활성화와 더불어 크게 2가지: 1) IEP 작성과 실행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 개발 및 제공, 2) 나이스 시스템 활성화와 개선을 통한 지원요구가 도출되었다. 첫째, IEP 협의회 운영, 작성 양식(교과 중심 vs. 발달 영역 중심)과 작성 방법(목표 진술, 교육과정 재구성에 기초한 교육계획, 교육방법, 분량 등), 학교급별, 지역별, 관리자의 입장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제공하여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IEP 작성을 위한 제도적인 안내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임시절로 돌아가면 문장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막상 교육적 문장으로 풀어낸다는 게 경험이 없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시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면 양질의 예시 자료요, (중3, 16:18-21)
- IEP 양식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학년도마다 천차만별인데, 수정하면서 변경을 해나가지만 이 양식에 대한 지침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2, 21:32-33)

둘째,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교과 중심 IEP 작성의 융통성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학교마다 양식과 작성법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나이스 활용 관련 지침을 명료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 IEP형식도 저희가 지금 나이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학교마다 완전 천차만별이거든요, (중략) 어떨 때 보면 이제 다 짜고 나면 막상 이게 체계가 아니고 시스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양식에 대한 지침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나이스도 꼭 뒀으면 좋겠어요, (중2, 21:29-33)
- IEP를 쓰기 전에 이것이 학문적인 영역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영역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뭐 꼭 국어라고해서 IEP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어떤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나이스 그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다면 좀 고민이 줄지 않을까 (중3, 21-22:40-3)
- 지금 교장선생님은 학습적인 거 교수적인 활동 이런 것들 되게 포커스를 맞추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 반 친구들 수준에서는 당장 젓가락, 밥 먹는 태도부터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이에서의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열려있다면 교사에게도 좀 더 열린 IEP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중3, 22:29-33)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별화교육계획 문서 작성 및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태도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수적인 요인임을 바탕으로, 교원양성과정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경험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의

실제와 지원요구를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 현장 특수교사의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5가지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1) IEP 관련 최소한의 법적절차 준수, 2) 교사의 IEP 관련 전문성 부족, 3) 학교 구조 및 교육제도 개선 지원요구, 4) 예비 및 현직 교사교육 강화 지원요구, 5)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지원요구.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다음의 영역에서는 특수교사 양성기관의 예비교사 양성에 대한 책무성 강화(예비교사 지원 측면) 및 교육현장에서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운영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증진(현직교사 지원 측면)에 중점을 두어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예비 특수교사 지원 측면에서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 강화

교사들은 IEP를 작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목표설정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학교 연간교육과정 혹은 특수학급 교육과정 수립 및 단위별 수업계획의 연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패과약에 관한 선행연구(예: 강민채, 박현주, 2012; 김원경, 최평임, 2011; 박경옥, 서선진, 2016)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어려움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수교사 양성기관의 예비교사 양성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사교육의 본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전국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이 중심이 되는 IEP 참여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실태를 조사한 박윤정 외(2016)의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402명)의 약 55.5%에 해당하는 219명만이 대학과정에서 IEP관련 교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참여교사가 목적표집으로 이루어져 일반화를 하기엔 다소 제한이 따르지만, 참여 초·중등 특수교사의 50%만 교사교육 IEP 관련 강좌의 수강 유무에 대해 대학 교원양성과정 혹은 교사 직무연수에서 관련 강좌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IEP의 중요성 및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IEP 관련 업무의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원 인력의 양성과정의 준비가 부족함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 3월 31일자를 기준으로 국내 교원양성기관의 개별화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전국 31개의 특수교육과 중 7개의 대학에서 필수교과로 IEP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총 17개의 교육대학원(전공별 강좌까지 포함하면 총 27개의 과정) 중 단 3개의 교육대학원에서 IEP 관련 강좌가 운영되고 있었다. 물론, 직접적으로 IEP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수자의 철학 혹은 수업 운영계획에 따라 타 교과목 강의 시간에 IEP 실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강의 요목에

포함시켜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수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타 강좌에 삽입하여 IEP의 운영과 실제에 대해 교수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교사의 역량을 모두 다루기에는 양적·질적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IEP 수립과 운영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부재 혹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에 투입된 특수교사들이 IEP를 수립하고 운영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초래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수교사 양성기관은 예비 특수교사들의 IEP 관련 기초역량 및 실제적 구안과 적용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IEP 관련 예비 교사교육의 내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IEP에 대한 최근의 학문적 고찰(강은영 외, 2018; 윤광보, 2008; 이대식, 2017; 정주영, 2008; 최종근, 2015) 및 정책적 흐름(교육부, 2017)을 분석하고, IEP 교육 실제와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예: 교육과정 재구성, 현행성취수준 파악, 목표수립, 목표-수업-평가 연계,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IEP 관련 이론과 실제의 경험을 중시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방법으로 강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현직 특수교사의 효율적 IEP 수립·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증진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그룹 간 동질성을 유지하여, 초등 및 중등 특수교사로 포커스 그룹을 이원화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특수교사로부터 동일한 대주제 및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IEP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인 지원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무엇보다 한 명의 특수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현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다. IEP를 수립·운영하면서 특수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당면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모든 교과 IEP를 작성하고, IEP 작성과 실행이 분리되어 이원화 되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예: 강민채, 박현주, 2012; 김동희 박희찬, 2009)에서도 많이 보고되어 왔던 점들로 최근 강은영 외(2018)가 이러한 어려움을 기초로 IEP 수립 및 실행의 질적 향상 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IEP의 국내 교육현장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IEP와 관련된 특수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IEP의 개념과 정의, 성격 및 기능, 유형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선행되어 IEP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델들(예: IEP 유형, IEP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 모델 등)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현장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대식(2017)에서 제안되었듯이, 각 장애 유형과 정도별로 IEP 유형을 개발하고 수정 가능한 형태로 교육현장에 제공하여 교사들이 쉽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직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혹은 특수교사 간 멘토링 활성화와 같은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시·도 교육청이나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사연수에서는 IEP과 관련된 이론 및 법령적·정책적 요소의 모색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강좌내용(예: 교육과정과 IEP 연계, 교수적 수정, 목표 진술 문장 작성, 관련서비스 지원)들을 다루어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수석교사 컨설팅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간의 멘토링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특수교사들의 IEP 관련 전문성과 자신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에 기반한 실제적인 IEP 실행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적 배치환경과 학년 급별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특수교사의 IEP 수립·운영과 관련된 지원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연구 참여자의 대표성 및 표집을 확장하여 추가적인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요구를 우선 순위화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IEP 실행을 위한 매뉴얼에는, 개별화교육계획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지침, 목표 수립과 관련된 양질의 예시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겠으며, 통합교육 실행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이숙향, 이효정, 최하영, 채수정(2017)에서도 강조되었듯이 개발된 매뉴얼은 성공적인 현장적용을 위해 보편성과 교육현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적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에 참여한 초등·중등 특수교사로부터 동일한 대주제 및 소주제가 도출되었지만, ① 중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및 ② 청소년기 특수교육 대상자의 IEP 목표 설정의 측면에서 중등 특수교사가 초등 특수교사보다 더 많은 지원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중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크게 교과교육의 전문성과 진로·직업과 관련된 서비스 연계와 관련이 있었다.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중등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IEP를 작성하고 실행할 때, 교과별 중등교과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교사 개인이 교육현장에서 관련지식을 스스로 학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면담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박경옥과 서선진(2016)은 IEP와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중등 특수교사 양성프로그램에서 표시과목 혹은 부·복수 전공을 통해 피상적으로 교과 내용지식을 습득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학습한 교과 내용지식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심지어 본인이 대학에서 전공한 교과를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경우는 드문 점 등은 중등 특수교사가 당면한 교과교육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김병하, 2009; 전병운, 2011).

교과교육의 전문성 뿐 만 아니라 중등 특수교사는 IEP 관련 실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등 수준에서 IEP를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진단평가도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현장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측정학적 적합성(psychometric properties)을 갖춘 교육과정중심측정에 기반 한 검사 도구를 중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하여 개발하여 청소년기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행수행수준 파악 뿐 만 아니라 학습의 진전도를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내 교육과정중심 측정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여승수, 홍성두, 손지영(2014)의 문헌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게다가 진로·직업과 관련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문성(예: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현장실습, 추수지도 등)이 특수교사에게 집중적으로 요구되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된 연구결과(김경미, 양소현, 이미숙, 2018; 박경옥, 박은송, 박희찬, 2010; 윤태성, 유애란, 2008; 조현정, 홍원표, 2013)들과 일치한다. 중등 특수교사의 경우 교과교육 및 진로·직업과 관련된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과 교육배치의 환경에 따라 중등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사에게만 모든 부담감과 책임감이 부여되는 현 학교 구조와 지원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려는 행정적·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특수교육대상자의 IEP 교육목표 수립과 관련한 어려움은 크게 부모와 교사의 의견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중등 수준에서의 진단평가 실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IEP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부모님이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장애학생이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의 목표 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중등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면 IEP의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본인이 스스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자기결정력의 증진이라는 측면(서효정, 박윤정, 2015; 서효정, 박윤정, 한경근, 전병운, 2017)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목표 설정 및 달성의 과정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점은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 성공여부와는 별개로 장애학생 본인이 반성적 자기성찰 과정을 통해 학업적·기능적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자기조절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의 긍정적인 지지와 지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박윤정, 서효정, 2018).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장 특수교사들의 IEP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 및

현직 교사교육 측면에서의 지원요구를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질적 연구의 특성상 목적 표집된 서울·경기지역에 재직 중인 현장 특수교사 소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논의 내용을 일반화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가 교사교육 및 지원체계의 증진 측면에서 특수교사의 IEP 수립 및 실행의 실제와 지원요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사양성기관의 개별화교육계획 교과목의 교수요목이나 운영방안을 분석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보다 실질적인 제언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설계할 때 강의요목 및 운영방안 분석까지 고려하였으나, 개별화교육계획 교과목을 운영하는 특수교육과 혹은 교육대학원 교수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교과목의 교수요목 및 운영방안을 분석하는 연구뿐 만 아니라, 개별화교육계획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교육현장에 부합하는 개별화교육계획 실행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예비 특수교사 및 현직 특수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IEP를 작성하고 운영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민채, 박현주 (2012). 초등학교 통합교육 담당 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IEP) 인식과 운영 실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2), 145-165.
- 강은영, 박운정 (2016).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gn)를 활용한 초등특수학급 교육과정 개발과 IEP와의 연계 방안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3), 359-388.
- 강은영, 박운정, 서효정, 박경옥 (2018).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실행의 질적 향상 방안: IEP 유형 제안 및 질적 지표 활용 필요성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53(1), 137-163.
- 교육부 (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전략**. 교육부 보도자료.
- 김경미, 양소현, 이미숙 (2018). 중도·중복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문헌 고찰. **지적장애연구**, 20(1), 119-144.
- 김동희, 박희찬 (2009). 정신지체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특수 아동교육연구**, 11(2), 257-276.
- 김병하 (2009). 우리나라 특수교사 양성과 수급의 쟁점. **특수교육학연구**, 44(2), 1-21.
- 김은주 (2014). 읽기이해 전략에 관한 교사교육이 특수교사의 내용교수지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11(2), 257-276.

- 김정삼, 김진희 (2011). 개별화교육계획의 실제 및 교사 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1-22
- 김진주, 박재국, 김일수 (2016).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특수교사의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8(2), 203-227.
- 김희규 (2012). 특수교육 교사의 교과 지도 역량 강화 방안.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5(2), 59-78.
- 박경옥, 서선진 (2016).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구현: 특수교사 연구회 구성원의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3), 115-142.
- 박선미, 안성우 (2008). 초등 특수학급 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IEP)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 부산지역 초등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특수교육개발과학연구**, 47(1), 167-189.
- 박선향, 박수경 (2016). 특수교사의 교수내용 지식과 교수적 수정 및 실천적 지식과의 관계 분석. **교육방법연구**, 28(1), 171-199.
- 박윤정, 강은영 (2016). 예비특수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진단평가 수업에서의 어휘-선택 CBM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3(3), 243-263.
- 박윤정, 서효정 (2018). 지적장애학생 목표설정과 자기결정행동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20(2), 23-40.
- 박윤정, 서효정, 전병운, 한경근 (2016). 장애학생이 중심이 되는 IEP 참여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실태. **특수교육학연구**, 51(2), 297-313.
- 박은송, 박경옥, 박희찬 (2011). 최중도 지체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1), 165-184.
- 방명애, 강남숙 (2005).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39(4), 149-173.
- 서효정, 박윤정 (2015).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IEP) 협의 과정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미국 중재연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2), 435-464.
- 서효정, 박윤정, 한경근, 전병운 (2017).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주력하고 있는 교육 목표의 내용과 범주 비교 및 키워드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1(4), 167-185.
- 윤광보 (2008).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교육과정 개별화 방안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3), 387-408.
- 윤태성, 유애란 (2008). 충남 중등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태 및 개선방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17-41.
- 이대식 (2017). 개별화교육계획(IEP)의 현장 적합성 강화 방안. **교육논총**, 37(3), 315-343.
- 이숙향, 이효정, 최하영, 채수정 (2017). 통합교육 실행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현실 및 지원요구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2(2), 45-79.
- 여승수, 홍성두, 손지영 (2014). 한국 교육과정중심측정(CBM)의 연구동향: 측정학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1(3), 187-213.
- 전병운 (2008). **특수학교교사 수업능력 평가 기준**.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91-118.

- 전병운 (2011). 중등특수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5(4), 115-132.
- 조현정, 홍원표 (2013).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등교육연구**, 61(1), 169-198.
- 정주영 (2008). 교육 내용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교육 목표 개발 방법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171-194.
- 최승숙 (2012). 반성적 저널쓰기를 활용한 특수학급 현장실습이 예비특수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1(1), 107-130.
- 최종근 (2015).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참여 의사결정 모델 개발. **통합교육연구**, 10(2), 57-77.
- 태원섭, 박남수 (2007).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과 운영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261-281.
- Agran, M., Blanchard, C., & Wehmeyer, M. L. (2000). Promoting transition goals and self-determination through student-directed learning: The Self-Determined Learning Model of Instruc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5, 351-364.
-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Sage Publication, Thousand Oaks, CA.
- Grossman, P. L. (1990). *The making of a teacher: Teacher knowledge and teacher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Realities and Support Needs on IEP Practice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Park, Youn-Jung

Dankook University

Seo, Hyo-Jeo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s regarding IEP practices and their support needs, focusing special educators as the main subject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EPs. A total of 8 special education teachers from Seoul and Gyunggi province areas participated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s of focus group interviews (FGIs). After confirming the reliability of interview transcripts, researchers conducted content analyses using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As a result for the qualitative analyses, the following five themes emerged: (a) the minimum compliance with legal proceedings on IEP practices, (b) lack of professional expertise in IEP practices, (c) support needs on improving school structures and educational system, (d) support needs on strengthening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and (e) support needs on establishing systems and manuals.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roving the systematic support system and accountability of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for pre- and in-service teachers.

Key Words :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Teacher Education, Qualitative Study, Focus Group Interview

논문 접수: 2018. 08. 09 심사 시작: 2018. 08. 13 게재 확정: 2018. 09. 18